

베이트먼 감독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됨



지 금까지 교회의 관리 감독으로 봉사해 온 메릴 제이 베이트먼 감독이 유타 주 프로보에 소재한 브리감 영 대학교의 신임 총장이 되었다. 그는 또한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1996년 1월 1일부터 발표되는 이 임명은 브리감 영 대학교 이사회 이사장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발표했다.

베이트먼 장로의 전임자인 텍스 이 리 형제는 계속되는 건강상의 문제로 현 직위에서 해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텍스 이 리 형제는 1989년 10월에 브리감 영 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올해 59세인 베이트먼 장로는 이전부터 브리감 영 대학교와 인연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경영 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그 이전에 가나 대학교와 콜로라도 주에 소재한 미 공군 사관 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바 있다. 후에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마스 캔디 회사의 중역으로 일했다.

그는 자신의 상당 및 자본 관리 회사

를 운영하던 중인 1992년 6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았으며, 1994년 4월에 관리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베이트먼 장로는 사업 분야에서의 경력도 화려하지만, 교회 봉사를 위해서도 헌신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는 감독으로 한 차례, 고등 평의원으로 일곱 차례, 스테이크 부장으로 두 차례 봉사하였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그 뒤, 동경에 본부를 둔 북 아시아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유타 주 리하이 시에서 출생한 베이트먼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59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마릴린 스코울스 자매와 결혼하여 일곱 명의 자녀와 열여섯 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

교회 보조 조직 회장단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정화를 촉구함

본 부 상호부조회, 청년 및 초등협회 회장단들은 최근에 텔레비전의 폭력, 신성 모독, 거친 장면 그리고 부도덕성에 관한 내용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사전 허가 및 모니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기관인,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보낸 서한에서 이 회장단들은 미국 내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회장단들은 자신들이 전세계의 3백 7십만 상호부조회 회원, 5십 4만 4천여 명의 청년 그리고 1백 2십여만 명의 초등협회 어린이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서한은 복음 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에 있는 부모들의 염려를 반영하고 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최근에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정규 방송 및 유선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연방

통신 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어린이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지도하는 데에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부적당하고 파괴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FCC는 유선 및 정규 방송 업체가 어린이들을 위해 품위있는 양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 신성 모독, 거친 장면 및 부도덕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FCC가 제한을 둔 것에 대해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 학교 및 종교를 조롱하는 현상이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장면들이 교활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FCC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화하는 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 줄 수 있는 텔레비전의 힘이 사회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쾌락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대중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정정을 하는 데 FCC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잭 자매와 두 보좌인 지에프 앤 오까자키 자매,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본부 청년 회장인 제니트 시 헤일즈 벤�컴 자매와 두 보좌인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보니 디 파킨 자매 그리고 본부 초등협회 회장인 패트리샤 피피네가 자매와 두 보좌인 앤 지 워스틴 자매, 수잔 엘 워너 자매가 이 서한에 서명했다. □

세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의 복지 사업

교회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구호 및 기타 인도주의적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최근 십여 년 동안 그러한 사업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교회는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분야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자립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가 1985년 이래 11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154건의 구호 사업과 109건의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사업은 베냐민 왕의 다음과 같은 권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모사이야서 2:17)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의 인도주의적 봉사에는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서 400건 이상의 기아 구호, 지역 사회 발전, 현물 배급 사업에 참여한 것이 포함된다.

교회는 350여 개 이상의 사설 자원 봉사 단체, 지역 사회 기관 및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참여했다.

그러한 지원에 필요한 기금은 회원들의 헌금과 기타 기부금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현물(비금전) 지원의 상당 부분은 교회 회원들이 생산하고 기부한 물품들 중에서 제공되고 있다.

의복 및 식료품

1994년도 사업에는 4백만 킬로그램 이상의 헌옷을 미국 국내 및 해외의 피난민과 추방된 가족들과 기타 궁핍한 개인들에게 보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8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입힐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다. 특히 르완다의 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곳에는 10억 원 정도의 식료품과 의복, 의료 물품 및 기타 구호 물자가 기부되었다. 또한 여러 나라의 부랑자나 빈곤자들을 위한 식료품 저장소와 급식 프로그램에도 식료품이 지원되었다.

일본, 아프리카, 필리핀, 파키스탄 및 미국의 태풍과 화산 폭발, 지진 및 기타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및 비회원에겐은 재난 구호 물자가 제공되었다.

동유럽 지원

현재, 수많은 동유럽 국가 및 전 소비에트 연방 일부 국가의 빈곤한 국민들을 돕기 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4년에는 러시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몰다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로 식료품과 의복과 의료 장비와 서적 및 기타 물자가 보내졌다.

교회는 의료, 교육, 장애자를 위한 봉사 및 기타 도움을 주는 직업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성숙한 부부 선교

사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요청에 더욱더 많이 부응하고 있다. 현재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임 부부 선교사들이 인도주의적 봉사 선교 사업에 임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원과 교육자와 기타 분야의 종사자들이 개인별로 여러 나라의 정부 부처, 병원,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 단기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사업을 지원함

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빈곤과 고난의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가나에서의 식량 재배, 아프리카에서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 타일랜드와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에서의 촌락 신용 협동 조합, 짐바브웨와 케냐에서의 농업 개발 등의 사업 추진이 그러한 프로젝트의 예이다.

교회는 때때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직하고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 교회 밖의 이미 잘 알려진 기관들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성도들의 직접적인 기부가 교회 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원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회원 및 복음 선교사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봉사하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한 온정 어린 인도주의적 봉사를 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헌납하고 있다. □

1994년-1995년 통계

43개국에서 봉사중인 복지 선교사의 수	383명
대형 재난 지원 사업 건수(1985-1995)	73건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1985-1994)	
현금 기부	190억원
총 지원 가치	580억원
수혜 국가	109개국
식량 지원(톤)	3,615톤
의료 장비 지원(톤)	243톤
잉여 의복(톤)	11,200톤

※ 성전 특집 관계로 지역 소식은 쉽니다.